

1910~1920년대 활자본 구소설에 나타나는 낭독 언어 연구*

장 유 정**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기억의 좌표 |
| 2. 음성적 지향 | - 되풀이 독서와 언어관 |
| - 모음조화와 아래아의 활용 | 5. 맺음말 |
| 3. 반복과 몰입 | |
| - 동음과 의미 분절의 리듬감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10~1920년대 대중에게 선호되었던 활자본 구소설의 ‘낭독성’을 규명하고, 당시 문화 계층별 언어관을 분석한 글이다. 활자본 구소설에서는 모음조화와 아래아(·)의 활용을 통해 음성 지향적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동음과 동일한 의미 분절이 반복되면서 산문 문장에 리듬감이 강화된다. 낭독성이란 그저 소리 내 읽는 성독(聲讀)과는 다르다. 낭독자는 감정에 따라 어조를 바꾸고 표정을 지으며, 과장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1232)

** 성균관대학교 강사

길게 읽기, 효과음 내기 등 모든 방식을 동원한다. 이런 방식은 무학자들이 당대 문화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20세기 초 문자를 읽고 내러티브를 인지하는 방식은 문화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한 계층은 문자를 ‘의미의 문자’로 인식했고 다른 한 계층은 ‘기억의 도구’로 인식했다. 양자의 언어관이 동시대 문학장(場)에 공존했다. 언어관의 차이는 독서의 취향과 수용 방식까지 영향을 미쳤다. 한쪽은 근대문학을 추구했고 다른 한쪽은 전통적 서사의 향유 방식을 지향하고 있었다. 근대소설의 정착과 궤를 같이하는 당시 지식인 독자들은 낭독 독서법을 버려야 할 유산으로 문제시했다. 그러나 낭독성이라는 문화코드를 감지하고 있었던 활자본 구소설 없이는 다수의 독자가 근대 출판시장으로 진입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 서사의 에너지를 끌어오면서 지식인과 다른 집단의 언어관을 반영한 활자본 구소설의 낭독성은 보다 넓게 이해되어야 한다.

주제어 : 활자본 구소설, 고소설 독서법, 낭독성, 한글 언어관, 하위대중

1. 머리말

1915년 『매일신보』 기사에는 “신구소설의 종류이라 소설을 보는 사람은 상중하사회의 계급이라던지 혹은 남녀로서의 구별이 없었다”¹⁾고 한다. 1910~1920년대 문학 지형에서 상당수가 ‘활자본 구소설’²⁾의 독자였

1) 『書籍界에 獨魔, 타락된 서적상계 그 중에 몇몇 해적 괴수는 인사동에』, 『매일신보』, 1915.04.13.

2) 연구 시각에 따라 활자본 고전소설, 활자본 고소설, 활자본 구소설, 구활자본 고전소설, 구활자본 고소설, 활판본 고소설, 딱지본 등으로 명명한다. 이 글에서는 1910년대 출판 시장의 대중 서사로 떠오른 일련의 작품들 중 ‘신(新)’과 구별되는 ‘구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당시 창작된 신작구소설을 포함하는 ‘활자본 구

다. 기존 연구에서 활자본 구소설의 대중적 인기는 ‘내용의 통속성’³⁾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최근 들어 20세기 초 다른 장르에 비해 높은 출판 비율을 차지하는 활자본 구소설이 주목되면서 “근대에 구소설이 갖는 의미”⁴⁾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딱지본의 역사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던 문제”⁵⁾의식과 근대 독자의 한 층위를 담당할 구소설 수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활자본 구소설 인기 요인을 내용의 통속성과 더불어 독자층이 지닌 특성과 부합된 지점을 찾는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1910~1920년대 활자본 구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이전 시대의 이야기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는, 근대에 미달된 독서로 취급되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대중들의 독서는 긍정했지만, 구소설의 독서는 강하게 ‘부정’⁶⁾했다. 1920년대 후반, 근대 문인들은 다수의 독자를 구소설에서 다른 장르로 견인할 방법을 강구했다. 그 과정에 김기진의 글이 주목된다. 1929년 김기진은 대중소설을 쓸 때 농민들의 독서법을 반영하여 “낭독할 때에 호흡이 편하도록”⁷⁾ 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동자와 농민의 독서 방식을 반영하여 운문적 문장을 강조한다. 실제로 당시 활자본 구소설은 낭독으로 향유된 정황이 뚜렷하다. 근대 독서는 ‘목독’으로 표상되지만 근대의

소설’이라는 용어를 쓴다.

- 3) 권순궁, 『活字本古小説의 편폭과 지향』, 보고서, 2000; 박상석, 『짜깁기방식의 활판본 역사소설 연구』, 『영주어문』 20권, 영주어문학회, 2010; 김성철, 『고소설과 신소설의 혼종 양상과 담당층』, 『우리어문연구』 52집, 우리어문학회, 2015; 권순궁,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소명출판, 2019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 4) 한기형, 『차등 근대화와 식민지 문화구조』, 『민족문화사연구』 62호, 민족문화사학회, 2016, 48쪽.
- 5) 유석환, 『딱지본 재독 - 딱지본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위하여』, 『근대서지』 18호, 근대서지학회, 2018, 532쪽.
- 6) “신문이나 잡지를 보라고 권고한 즉 신문을 보느니 ‘옥중화’를 보지하고 랭소(冷笑)를 하니 이러한 불상한 물건을 무엇에 쓸가요(『때의 소리』, 『동아일보』, 1921.12.10.)”
- 7) 김기진, 『대중소설론(大衆小說論) - 육』, 『동아일보』, 1929.04.19.

시간 안에 ‘낭독’의 독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글 고소설이 낭독으로 향유되었음은 주지의 사실⁸⁾이다. 고소설 언어에 나타나는 낭독성 연구는 소리와 연관된 가사문학과와 겹겹, ‘판소리계 소설의 분석’⁹⁾ 정도이다. 고소설의 다른 연구주체에 비해 ‘낭독성’ 연구는 적은 형편이다. 낭독성을 증명할 만한 자료적 실상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음악성이 아닌 고소설 문장에 스민 낭독성 논의는 불가피하다. 김기진은 근대 대중소설이 고소설에서 취할 것은 낭독 언어라고 보았다. 독자에게 선호되는 문장은 문학의 전파력과 관련이 깊다. 활자본 구소설은 근대에 살아남은 고소설이다. 활자본 구소설의 낭독 언어 분석은 고소설의 구술적 문장에 대한 접근이며 근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동력을 찾는 일이다.

근대 낭독 독자층에 대한 ‘문맹률로 인한 접근’¹⁰⁾은 대중 독서의 낮은 진입 장벽을 설명하는 것에서 설득력이 있으나 문해력을 중심으로 독자를 차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연희를 전제로 하는 판소리계 소설에 국한하지 않고, 활자본 구소설 언어가 가진 낭독성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고 읽기 방식의 지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작품 언어에 나타나는 낭독성을 ‘낭독 언어’라 지칭한다. 2장에서는 활자본 구소설의 음성 지향적 성향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동음과 동일 리듬을 반복하여 얻는 읽기의 몰입 효과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당

8) 19세기 초 남성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한글 고소설은 낭독으로 수용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된다. “1853년 12월 내가 오두막을 짓고 도성 남쪽에 살 때 긴긴 밤 잠이 없었다. 이웃집이 언문으로 된 폐관[稗官諺書] 책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세 종류를 빌려다 사람을 시켜 읽게 하고는 들어보았다(歲在昭陽臘月, 余寓城南置廬, 長夜無寐, 聞隣家多藏稗官諺書, 借來三種, 使人讀而聽之(서유영, 『소서小序』, 『六美堂記』, 서강대학교 필사본).” 원문은 필자가 의역함.

9) 김진영, 『고소설의 낭송과 유통에 대하여』, 『고소설연구』 1권, 1995.

10) 장유정, 『활자본 고소설과 식민지 모더니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68-86쪽 참고.

시 근대 문학가들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구소설 독자들의 언어 감각을 재고한다. 낭독 언어 분석은 독자의 문해력 차등을 넘어, 한글 텍스트 격변기에 활자본 구소설의 차별화된 전략과 대중성을 규명할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2. 음성적 지향 - 모음조화와 아래아의 활용

1910년대 활자본 구소설 수용자를 의식한 마케팅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는 1913년 신문관에서 발행된 ‘육전(六錢)소설’이다. ‘육전소설’의 간행 취지를 요약하면, 연할자의 도입으로 서적 인쇄가 쉬워짐에 따라, 저렴한 책이 많아지는 폐단을 막고자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려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는 것이다. 육전소설은 초판 간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출간되지 않았다. 전할 만한 것을 가려 저렴한 가격에 선보였는데 왜 실패했을까. 이주영¹¹⁾과 최호석¹²⁾은 육전소설이 더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로 이미 존재한 경판본을 그대로 차용한 점을 꼽았다. 그런데 실패 원인을 경판 모본(母本)문제로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육전소설 속 『전우치전』은 경판을 모본으로 삼았다. 이와 동일하게 경판을 모본으로 삼은 1917년에 간행된 영창서관(永昌書館) 『전우치전』¹³⁾은 흥행에 실패하지 않고 3번 이상 중판되었다. 따라서 경판을 실패의 원인으

11) “<육전소설 문고>는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짠 가격에 비해 체제가 보잘 것 없었고, 유통되던 방각본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이주영, 『신문관 간행 육전소설 연구』, 『고전문학연구』 11권, 한국고전문학회, 1996, 439쪽).”

12) “육전소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당대 독자에게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정한 뒤, 이본에 대한 면밀한 검토 끝에 선본(善本)을 정하고, 내용을 완전(完整)하게 갖추어야 했을 것이다(최호석, 『신문관 간행 ‘육전소설’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57집, 2010, 155쪽).”

13) 서지사항을 보면 1917년 6월에 초판 발행되어 1918년 1월에 3번 재판되었다.

로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른 작품은 어떨까.

‘육전소설’에 선별된 작품들 중 활자본 구소설의 영역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은 『심청전』이었다. 당시 ‘심청전’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작품은 이해조의 『강상연』이다. 『강상연』¹⁴⁾의 도입부를 살펴보면 3·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4음보로 반복되어 끊어 읽기가 좋다. 운문적인 리듬감과 ‘펼펼’이라는 의태어가 있어 문장에 생기가 돈다. 반면 육전소설의 『심청전』¹⁵⁾은 반복되는 음절이나 의성어, 의태어, 접속조사의 반복이 없다. 서사를 읽었을 때 소리의 강약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강상연』은 ‘명창심정순구술(名唱沈正淳口述)’이라고 명창이 구술한 것을 이해조가 산정하여 연재한 작품이었다. 육전소설의 『심청전』은 경판 24장본을 모본으로 삼고 있다. 경판 24장본은 일명 한남본이라 하는데 경판 20장본이 판소리체를 지향했다면 ‘한남본은 전형적인 문장체 소설’¹⁶⁾이다. 육전소설 『심청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듬감을 가지고 있던 『강상연』은 낭독하기에 적합한 작품이었다. 육전소설의 실패 원인은 경판본의 차용만은 아니다. 동일 작품이더라도 낭독의 용이성에서 얼마나 가까운 언어였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작품의 언어가 음성 지향적 특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활자본 구소설 언어의 낭독성에 접근하기 위해 첫 번째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국악연구자 김정태는 연행되는 판소리(발음과 발성)와 기록된 가사의 차이를 규명하여 구두전승의 양상과 판소리꾼들의 연행 지향성을 분석

14) “느진 봄 피는 꽃은 곳곳이 만발 인디 정업시 부는 바람 꽃가지를 후리치미 락화는 유점(遊蝶)갓고 유점은 락화갓치 펼펼 날니다 가림당슈 흐르는 물에 힘업시 썩러지미(이해조, 『강상연』, 신구서림, 1916(五版), 1쪽).” 이 판본은 1912년에 초판 되었다.

15) “화설 고려 말년에 남군 썩해 일위 명식 잇스되, 성은 심이로 명은 현이니 본디 명문거족으로 공에게 니르러는 공명에 유의치 아니호여 향리에 퇴쳐호고, 부인 정시는 성문지녀로 품질이 유한호고(유춘동·엄태웅 엮음, 『심청전』, 『신문관의 육전소설』, 소명출판, 2018, 111쪽).”

16) 김현주 외 편저,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1998, 57쪽 참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판소리에는 ‘양성모음(ㅏ, ㅑ)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ㅓ, ㅕ)은 음성모음끼리의 규칙성이 실제 연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¹⁷⁾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모음은 양성모음, 중성모음, 음성모음으로 분류된다. ‘모음조화(母音調和)’는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 음절의 모음이 앞 음절의 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뜻한다. 동일 모음 그룹끼리 뭉치는 현상은 16세기 이전 중세국어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이다. 김정태에 의하면 판소리 연희 과정에서 ‘되어’로 기록된 문자는 ‘되야’로, ‘하여’는 ‘하야’로, ‘모두’는 ‘모도로’ 발음되어 가창되었다고 한다. 국어의 변천에서 점점 모음조화 현상이 흐려져 기록된 문자와 실제 연행에서 발음된 차이를 보여준다. 중세국어에서 많이 보이는 모음조화 현상이 판소리 구전에서 훼손되지 않고 그 규칙성이 이어져 온 것이다. 이는 실제로 입말에 중점을 둔 전달로 볼 수 있으며, 모음조화 현상은 낭독되는 현상과 연관 지을 수 있다.

활자본 구소설의 언어는 고소설 작법에서 비롯되었다. 전대 언문 소설인 판소리계 소설과 국문 장편소설과 언어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나 어절 끝에 붙는 어미(연결, 종결) ‘-이요/-하야/ -던지, -허니/-하고’ 등은 옛이야기를 나타내는 표식과도 같다. 다음 인용문은 신작구소설 『신유복전』의 한 장면이다.

일시 빈천한 것을 홍보며 엇지 부모를 도라보지 아니 허리요 경옥 경난이 이말을 듯고 디로 허야 왈 내가 우리를 칙망하는 체허고 음논 혼마음으로 내가 저거리지를 위허야 살아야 허는도다 허니 경픽 디왈 무슨 어려울 거시 잇스리요 제일은 부모를 위허야 흠이요 …(중략)… 저 거진들 한씩가 업스리요¹⁸⁾

17) 김정태, 『판소리 발음법의 특이성 고찰 - 송순섭의 동편제 적벽가를 중심으로』, 『판소리 연구』 48권, 2019, 152쪽.

18) 『신유복전』, 광문서포, 1917, 14쪽.

고아 출신 '신유복'의 혼인과 출세를 다룬 이 작품은 1917년에 출간되어 23회나 중판(重版)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인용문을 살펴보면 모음조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ㅣ'는 중성모음으로 양성모음, 음성모음 모두와 어울린다. '이요', '하야', '하고', '하니'는 모음조화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또한 말소리에 중점을 두고 이어질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화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위 인용문은 빈천한 출신의 남성과 결혼하겠다는 경패에게 비난을 쏟아내는 언니들과 이를 조목조목 따지고 드는 경패의 대화이다. 양성모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감의 톤이 높고 산뜻한 소리로 발음되니, 말로 하는 난투극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모음조화를 중심으로 표현되는 구소설에도 예외적인 현상이 있다. 그 중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더라'의 종결이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시기에는 '-더라'는 단순히 과거 사실, 또는 과거의 미완의 사실을 표현하는 기능”¹⁹⁾을 했다. 일어났을 법한 일을 전달할 때 '-더라'는 유용한 말이었을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더'는 모음조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를 발음의 용이성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더라'에 'ㄷ'와 'ㄴ'은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으로 분류되어 갈라지지만 '단모음 분류도'를 보면 입술 모양이 동일하게 평순이며 혀의 위치도 후설모음이다. 즉 비슷한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으로 발음되기 용이함을 따르고 있다.

표기된 문자로 소리의 영역을 재고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아래아(·)'의 사용에서도 보인다. 아래아의 존재는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다.

19) “근대소설에서 종결형식에서 더라가 사라지는 것은 입체적인 서사 기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었다'를 선택하였다. '-더라'를 종결 형식으로 사용한다면 1인칭 시점의 소설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3인칭의 경우에도 화자의 경험, 깨달음 등과 같은 매우 협소한 환경에서만 종결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이홍식, 『한국어 어미 '-더라'와 소설의 발달』, 『텍스트 언어학』 14권, 한국텍스트 언어학회, 2003, 187-188쪽).”

1910~1920년대 신문, 잡지²⁰⁾에도 신소설, 근대문에 소설에도 아래아는 쓰였다.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에 의하면 아래아는 모음의 기본자인 ‘·, ㅡ, ㅣ’ 가운데 첫 번째 글자로 하늘을 본뜬 모양이라고 되어 있다. 아래아는 국어사 연구에서 ‘비어두 위치에서는 ‘ㅡ’로, 어두 위치에서는 ‘ㅏ’로 바꾸어 비음운화되는 것²¹⁾을 일반적인 통설로 보고 있다. 이 논의에 예외도 있다. ‘스매’가 ‘사매’가 아닌 ‘소매’로 변화한 것 등이다. 이는 방언과의 접촉을 통해 변화되었다는 논의²²⁾도 있다. 아래아의 음성적 자질과 비음운화²³⁾에 대한 의견 또한 연구자마다 다르기에 아래아의 구현과 명확한 1:1 소리 대응은 정리되기 어렵다. 이런 아래아의 복잡한 구현과 복수 음의 가능성은 오히려 활자본 텍스트의 낭독성을 규명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활자본 구소설의 언어에는 모음 ‘ㅏ’와 ‘ㅡ’가 표기될 때가 있고 아래아로만 표기될 때가 갈라져 있다. ‘비어두 위치에서 ‘·’는 ‘ㅡ’, ‘ㅏ’, ‘ㅓ’로 변화²⁴⁾하였다는 논의를 참고하여 다음 『추풍감별곡』을 읽어보자.

(필성) 소저계셔 경 이갓치 말숨이 안이 계시면 소싱은 이 가련호 신세를 세상에 바리고즈 호오니 말숨호야 주시옵소서 호며 압호로 다가서며 연히 몇 차례 말호니 치봉이 마지못호야 아미를 숙이고 안이 나오느 목소리로 모기소리 만큼 너여 호느 말이라²⁵⁾

20) 이광수의 『무정』이 연재되기 시작한 1917년 1월 1일자 『매일신보』에는 순한글로 사회 정보를 전달하는 난에 “큰불이 이러났는디 그 중에는 창기의 집이 다수히 소설(3쪽)”같이 아래아의 존재가 유지되고 있었다.

21) 김명주, 「〈현청문감〉에 나타난 · 표기와 그 변화 양상」, 『한글』 314호, 한글학회, 2016, 46쪽.

22) “스매 소매와 같이 ‘·’의 변화는 남부 방언의 반영(윤희선,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나타난 ‘·’의 양상과 그 특징」, 『반교어문연구』 53집, 반교어문학회, 2019, 219쪽.”

23) “김주필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나타나는 ‘·’를 비음운화한 이후의 표기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음운론적으로 ‘·’가 그것의 음성형이 실현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위의 논문, 218쪽).”를 진행한 바 있다.

24) 김명주, 앞의 논문, 46쪽.

요조숙녀 채봉은 자신에게 반한 필성의 고백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말도 없이 가만히 서있기만 하는 채봉을 보고 필성은 다급한 마음에 계속 말을 건다. 앞서 아래아의 발음 설명을 적용하면 비어두 위치에 있는 ‘말슴’은 ‘말슴’으로 ‘하논’은 ‘하느’으로 발음하면 된다. ‘ㅏ’로 발음하면 ‘말삼’, ‘하난’으로 발음해도 의미의 흐름에 무리가 없다. ‘ㅑ’의 발음을 의식해 본다면 ‘말슴’, ‘하논’이라고 발음해도 필성의 간절함은 변하지 않는다. ‘가련흔’은 비어두 위치가 ‘ㅡ’로만 구현된다는 것에서 벗어나 비어두 위치도 ‘ㅏ’의 실현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이렇듯 복수의 음으로 발음 되어도 의미를 해치지 않는 경우를 허용하는 문자가 아래아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복수의 음을 허용하여 얻을 수 있는 낭독성은 무엇인가. 다음은 1935년에 『동아일보』에 연재된 송지영의 「산촌생활기록 火田民들과가치」라는 글이다.

남편은 짐세기를 심거나 새끼를 꼬다가 좀 실증이 나면은 담배를 한 대 톱톱이 담어물고 번 듯이 큰대짜로 누어 춘향전이나 심청전같은 고대소설을 돌돌 말아들고 “각설”을 부르며 한참 자미 있게 보다가 그만 뜻뜻한구들 돌에 사지가 녹아나는 듯 소르르잠이든다 그러면 아해를 끼고 누어 자미있게 듯던 안해가밭고락으로 남편의 넓적다리를 꼬집어준다. 그러면 “이거 왜 이까노” 하면서 히죽이 웃고는 또다시 각설을 찾는다. …(중략)… 뜻뜻한 아랫목에 누어 전기책 보는 것도 자미가 제법 그럴듯하다. 이것이 그들의 겨울의 락이다.²⁵⁾

단란한 농민 가족이 여가 시간에 함께 소설을 즐기는 형태는 마치 라디오를 켜놓은 것 같은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잘 들리던 라디오가 기능을 멈추었을 때 (남편이 소설을 읽다가 잠이 들면), 라디오를 두드려 보니 (아내가 남편의 다리를 꼬집고) 다시 작동된다. 이런 낭독 풍경은 생

25) 『추풍감별곡』, 신구서림, 1913, 20쪽.

26) 송지영, 「산촌생활기록 火田民들과가치」 11, 『동아일보』, 1935.07.06.

동감이 전해진다. 구연을 통한 듣기로서의 독서라는 넓은 맥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낭독성이란 그저 소리 내 읽는 것, 한문 읽기에서 흔히 말하는 성독(聲讀)과도 다르다. 한문의 성독조차 리듬을 주어 타령이나 주문처럼 효과를 극대화하고 복수의 음의 허용치가 있다. 소설의 낭독성은 읽는 사람의 연극적 공연으로 이해해야 한다. 텍스트에 반영되지 않지만 수용자에 의해 각 등장인물을 다르게 구체화해 대화한다든지, 얼굴 표정을 다채롭게 짓는다거나 손짓을 하고 몸짓이 따라가며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슬플 때 어조를 바꾸고 과장과 길게 읽기, 효과음 내기 등 모든 방식이 동원된다. 이런 연희와 움직임, 표정, 제스처는 텍스트 밖의 요소이지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활자본 구소설의 표기의 불안정성은 텍스트 본연의 작품(작가를 포함)보다 수용자의 역할에 기대고 있다. 이는 ‘완전한 문해력’²⁷⁾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문자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단이었다.

20세기 초 무차별적이며 광범위하게 퍼진 활자본 구소설은 편안하게 쉬면서 오락으로 즐길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듣는 문학으로 활용되었다. 아래아가 아직 제주 노년 토박이 층에게 발음되고 있다는 연구를 보면 ‘중간음’을 구사할 수 있는 언어 환경에서 아래아가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방언은 소리에 차이를 지니고 있으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형태를 말한다. 지리적 분화로 인한 지역 방언과 사회적 요인(연령, 성, 사회 계층 등)으로 분화되는 사회 방언으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방언은 음운, 어휘에서 차이를 지니게 된다. 위의 인용문에는 ‘ㅏ’, ‘ㅑ’, ‘ㅓ’는 지금 현대 표기법으로 그대로 쓰인 부분도 있다. 굳이 아래아

27) “그들은 언문을 안다. 그러므로 겨울 뜻뜻한 아랫목에 누어 춘향전 심청전을 소리 높여 잘들 본다. 그러나 그가 지었다는 것 어찌케 써야 올흔 것을 모르며 더구나 철자법 같은 것은 쓰기는커녕 볼 줄도 모른다. 그리고 미움, 비움, 이행뻥 이하며 읽을 줄도 잘 모른다(송지영, 『산촌생활기록 火田民들과가치』 13, 『동아일보』, 1935.07.10.)”

를 구별해서 쓰는 것은 방언에 따라, 글을 읽는 낭독자(발화자)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모음’²⁸⁾의 허용치를 문자로 표기한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래이는 의미 맥락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에서 음성언
 어의 허용치를 넓힌 것이다.

3. 반복과 몰입 - 동음과 의미 분절의 리듬감

아래이는 고소설, 활자본 구소설에만 쓰인 것이 아닌 신소설, 근대소
 설 이광수의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될 때도 활용되었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 논의에 따라 낭독을 의식한 ‘내포기자와 내포청자’²⁹⁾가 있는
 신소설과 ‘구어체로 생활의 실상을 보여’³⁰⁾ 언문일치를 구현하려 했던
 근대소설과 활자본 구소설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먼저 신소설 이해조의
 『구의산』의 일부분을 보자.

서판서의 마음이야 엇더히리오 세상에 자애만키도 이동집밧게업고//
세상에 욕심업기도 이동집밧게업고// 세상에 스리알기도 이동집이오//
세상에 정디히기도 이동집이오// 세간살님이며 남편공께가 이동집밧게

- 28) 김선희는 아래아가 복수의 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불안정한 위상’이라고 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사용된 아래아가 다른 방언들과의 접촉된 현상을 분석하여 아
 래이는 모음추이 현상으로 소실되었다고 보았다(김선희, 『음체계의 변화와 방
 언접촉』, 『언어학 연구』 16호, 한국중원언어학회, 2010, 63쪽 참고).
- 29) 김윤진은 신소설에 대화를 엮는 방식이 있다는 것과, 웨인 부쓰와 불브강 이
 저의 ‘내포(implied) 작가’와 ‘내포 독자’의 논의를 빌려와 ‘내포 청자’의 문제로
 구술문화적 특징을 논했다(김윤진, 『신소설 서사기법의 구술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30) “한글로 쓰인 『무정』이 성공은 당대에도 조선의 구어체, 즉 ‘조선말’로 ‘말하는
 듯’이 쓰인 문장의 도입과 거기에 잠재된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로 인식되었다
 (김효진, 『근대 소설의 형성 과정과 언문일치의 문제(2) -이광수 연재 장편소설
 『무정』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28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쫓누가 잇스리오 하야 므사에 이동집의 의론을 반대하난일이 별로 없는
중³¹⁾

서판서는 전처 자식의 혼인을 살뜰하게 챙기는 셋째 부인 ‘이동집’ 모습에 감동한다. 위 인용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에’, ‘도’, ‘고’ 같은 동음의 조사가 반복되면서 읽을 때 속도감을 준다는 것이다. 신소설은 ‘고소설의 구어전통’³²⁾을 계승한 문체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재담적 서술이 언어유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판서 입장에서 지금 이동집은 자애롭고, 욕심 없고, 사리 있고, 정대(正大)하며 자신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다. 허나 이 나열들은 후에 이동집을 잘못 판단한 서판서의 허점을 부각한다. 또한 ‘착한 이동집’이라는 설정으로 후반부 이야기의 반전 효과를 얻는다. 동음의 반복으로 이야기에 속도감을 불어 넣는 것은 신소설만이 아니다. 판소리계 소설을 닮은 활자본 구소설 언어의 특성이기도 하다. 다음은 1916년에 창작된 신작구소설 『육효자전』의 일부이다.

밤스이에 잘 취침하신 여부를 물으되 잘 주무셨다 흐시던지// 밤식도
룩 잠못 이루었다 흐시던지// 물거시었다 흐시던지// 업섯다 흐시던지//
즈리가 차더라 흐시던지// 차지안터라 흐시던지// 덤더라 흐시던지 안터
라흐시던지// 심조흐섯다던지// 아니흐섯다던지// 스세히 엮주어 불거시
오³³⁾

위 인용문을 보면 ‘-던지’의 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효자가 어

31) 이해조, 『구의산』, 신구서림, 1912, 27쪽. 강조와 ‘//’표시는 필자에 의한 것이다. //는 반복의 토막을 구분한 것이다.

32) “신소설은 문체상 조선 후기 국문소설의 전통을 잇는다. 지문과 대화의 분리 표기방식은 판소리계소설 화법을 수용한 것으로 생생한 대화언어를 구현한다. 그리고 재담 등을 활용한 수사는 전대 국문소설의 구어전통을 계승한 것이다(양문규, 『초기 한국 근대소설의 문체 형성 과정』, 『민족문화사연구』 52호, 민족문화사학회, 2013, 106쪽).”

33) 『육효자전』, 조선서관, 1916, 54-55쪽.

버이에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양법이 제시된다. 동음의 틀이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소리 내어 읽을 때 리듬이 생긴다. 일정한 틀의 반복은 이야기를 리드미컬하게 진행시킨다. 속도감과 리듬감은 『구의산』과 같이 극적 반전을 위한 전략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효행의 나열은 지속되어야 하는 부모 봉양을 강조한다. 이러한 리듬감은 인간이 극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또한 나열하여 읽고 듣는 묘미가 있다. 『구의산』에서는 동음이 4번의 반복으로 그치는 반면 『육효자전』에서는 9번의 동음이 반복된다. 동음을 따라 읽게 되면 소리에 리듬이 붙게 되는데, 활자본 구소설은 신소설보다 낭독할 때 유희되는 소리를 더 많이 반복한다.

활자본 구소설 작품 중 오랫동안 사랑받은 것은 『춘향전』처럼 전대의 고소설들이었다. 활자본으로 53회 이상³⁴⁾ 출간된 『유충열전』도 그중 한 작품이다. 『유충열전』은 고난을 겪다가 성공하는 전통적인 영웅소설의 스토리 라인을 잘 구현한 작품이다. 어린 충열이 아버지의 정치적 적대자의 핍박으로 어머니와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되어 도망치는 장면은 구어적 표현보다는 ‘비감(悲感)’, ‘낭자(狼藉)’, ‘월색(月色)’ 같은 문어적 표현으로 구사된다. 이 문어 사이에는 일정한 ‘휴지’가 보이는데 의미 분절이 동일한 단위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앞의 구절과 동일한 길이로 낭독되면 반복성이 생기고 이것이 연속되면 리듬감이 생긴다. 이때 시간 조절을 위해서 앞과 비교하여 글자 음과 같은 자격의 휴지로 틈을 메우게 된다. 휴지를 의식하고 리듬에 맞추어 이 부분을 읽어 보면 다음과 같다.

몸의유희이/낭즈호고-// 월식갓치-/고흔얼골-// 진후빗치-/되얏스니-//
불상호고-/가련흔문-// 천지도--/설허호고-// 강산도--/비감한다-//³⁵⁾

34) 최호석, 『활자본 고전소설의 총량』, 『활자본 고전소설의 기초 연구』, 보고서, 78쪽.

35) 『유충열전』, 대창서관, 1929, 11-12쪽.

위의 도식은 5음절씩 앞뒤를 맞추고 빈곳에 휴지(-)를 두고 읽는다. 휴지로 생기는 의미 분절 단위는 운문적 리듬감을 가진다. 인용된 대창서관본 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방각본과 내용, 띄어쓰기 없는 배열도 동일하다. 이 부분이 띄어쓰기 없는 서술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1920년대에도 여전히 다수의 독서가 낭독의 형태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인용 부분은 모자의 참상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 토막씩 앞부분은 강한 악센트로 읽히고 뒷부분은 보다 약한 악센트로 읽힌다. 이와 같이 심리묘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낭독되는 과정에서 고저가 생겨 감정의 반응이 순식간에 전달된다. 모자의 심사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고저가 있고 중간에 같은 길이의 휴지가 반복되기에 몰입과 긴장감이 형성된다. 휴지가 있는 낭독에 호소력이 담기면서 청자는 주인공의 비극에 마음이 멍멍해지고야 만다.

1920~30년대 농촌의 생활상을 다룬 소설 이기영의 『고향』³⁶⁾과 이무영의 『흙의 노예』³⁷⁾에는 활자본 구소설의 독서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바로 도시 노동자가 여가 시간에 『유충열전』을 혼자 중얼거리며 읽는 장면, 사랑방 한쪽 구석에서 여럿이 『조웅전』을 읽는 장면이다. 또한 이야기책을 이장집이나 서방님 댁에서 빌려와 읽었다고 묘사된다. 당시 하위대중의 독서상은 집안사람들, 농촌 공동체 안의 삼삼오오 모여 낭독으로 향유하고 서로 빌려 읽는 형태였다. 전문 강담사가 아닌 소그룹에서 산촌생활의 한 단면처럼 한 사람은 읽고 나머지 사람은 일하며 듣는 방식이었다.

1922년 『개벽』에 실린 박달성의 글³⁸⁾은 모여앉아 구소설을 낭독하는

36) “그는 먼저 소사실 앞으로 살곰살곰 자취 없이 가서 귀를 기울여 보았다. 소사는 저녁마다 고대소설 유충열전을 흥얼거리다가 자정이 되면 자는데(이기영, 『고향』, 『조선일보』, 1934.07.29.)”

37) “매양 방 안에는 열 명 이상의 농군들이 모였다. …(중략)… 한쪽에서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 한쪽에서는 『조웅전』이니 『추월색』같은 이야기책을 보고 이모퉁이에서는 계집 이야기를 하면 저 구석에는 먹는 이야기대(이무영, 『흙의 노예』, 지만지, 2008, 115쪽).”

소리를 ‘거북한’ 소리라 평한다. 박달성의 글 이전에 고소설 비판은 구시대적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다수였지 ‘낭독 현상’을 지적하며 폄하하는 글은 보이지 않는다. 박달성은 활자본 구소설의 내용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집집마다 들려오는 구소설 낭독 소리가 거슬린다고 평했다.

1910년대는 조선은 한국어와 일본어라는 ‘이중언어’ 상황과 한문, 국한문 혼용, 한글이 동시에 신문 지면에 실리는 불균질한 한국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자 환경에서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무정』은 시점, 시제가 안정되지 못했지만 언문일치체를 실현한 텍스트이다.

형식의 호흡은 찻찻빨나진다 우선이가 영창으로 옛보다가 고양이 모양으로 가만가만히 나오면서 형식의 억기에 손을잡고 가늘게 일본말로 「모-싸메다(벌서틀넛다)」한다. 형식은 그만 눈에 불이 번뜻하면서 「흑, 흑고 퇴마루에 썩어오르며...(중략)...형식은 이러한 상황에 웃는 우선을 원망스럽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우선은 이러한 스건을 형식의 모양으로 그리 큰 사건이라고는 생각지아니한다.³⁹⁾

인용문은 『무정』에서 영채가 강간당한 일을 형식이 목격하게 된 부분이다. 닫힌 문 너머 남자의 그림자가 보이고 형식의 숨은 가빠진다. 형식의 친구 우선은 고양이처럼 슬며시 창문을 엿보고 나오면서 가늘게 ‘모-싸메다’라고 말한다. 형식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퇴마루에 뛰어올라 창문을 부순다. 화자는 객관적인 시점에서 사건의 내막을 묘사하려고 한다. 묘사는 사건이 생기면서 차오르는 분노의 감정, 정치한 사고, 예민한

38) “집집 방방에 신소설, 속가집은 많이 놓여있다. 이러한지라 남녀노소의 입과 입에는 소설 외우는 소리뿐이다...(중략)...집집마다 심지어 행랑방에도 춘향전 무슨전하는 소설 한 책씩은 다 있지 아니합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골목에 발만 내어 놓으면 집집마다 나오는 “각설 이때”의 소리 참말 듣기에 거북하더이다(박달성, 『경성 형제에게 탄원합니다!-대경성(大京城)을 건설키 위하여』, 『개벽』 21호, 1922.03.01.).”

39) 이광수, 『무정』, 『매일신보』, 1917. 02. 20. 1쪽.

반응 등 혼자서 읽는 집중도를 요구한다. 묵독은 타자와 교섭 없이 혼자 고독하게 집중하는 독서이다. 따라서 묘사는 묵독의 독서에 적합하다. 독자가 내용의 의미를 더듬고 상상하며 읽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화자는 사건 이후 우선이 웃으며 대하는 것에 형식이 속으로 원망한다는 것, 우선은 이러한 사건을 그리 큰 사건이라고는 생각지 아니한다는 것도 전달한다. 작가의 보여주기와 말하기로 독자는 주인공 내면을 실감으로 대하게 된다. 구어체로 서술되어 입말로 읽어도 좋지만 낭독보다는 내면의 풍경을 그리는 묵독으로 소비되기 적합한 텍스트이다.

『무정』은 언문일치체와 더불어 묵독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끝이어서 1919년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⁴⁰⁾으로 시점과 인칭이 자리를 잡으면서 묵독 읽기는 자리했다. 낭독성은 새 독서법이 정착할 때 이상해 보일 수 있다. 1922년 구소설이 낭독되는 소리에 대한 박달성의 불쾌감은 묵독의 성립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시 위 인용문을 읽어 보면 근대소설에도 음성 전략 문체가 존재한다. 우선이 표현하고 있는 ‘모-싸메다(もうだめだ)’는 지문에서도 보이듯 ‘벌써 틀렸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굳이 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어가 표현되고 괄호에 한국어가 표기된 것은 구어를 구사하는 언어 선별의 복잡성이라고 본다. 복잡성의 첫 번째 요인은 당시 일상어에 외국어를 쓰는 청년 지식인의 반영이다. 그들의 언어 습관, 외국어를 거치지 않으면 구사할 수 없는 표현 등이다. 두 번째는 ‘캐릭터’의 구현이다. 우선은 천하만사 웃고 지내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형식의 표현처럼 ‘풍

40) “家庭教師姜엘니자벳드는 가르침을 싣내인 다음에 自己방으로 도라왔다. 도라 오기는 하였지만 이갓것 快活한 兒孩들과 마조 유쾌히 지난 그는 껌々하고 갑々한 自己방에 도라와서는 無限한 寂寞을 깨다랏다(김동인, 『약한 자의 슬픔』, 『창조』 창간호, 1919. 02, 53쪽).” 『창조』는 기성 문단과 차별화를 두고 ‘순문에’를 추구하겠다는 청년 집단이 1919년에 낸 문예지였다. 『약한 자의 슬픔』에 도입 부분을 보면 단어에 첫머리에 오는 돌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인 ‘어 두자음군’은 살아있으나 아래아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소리와 문자의 일체감이 더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류남자' 우선은 이런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어처럼 아무렇지 않게 반응한다. 세 번째는 첫소리에 장음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일본어 'もう'는 문자로는 두 음절로 표기되지만 발음할 때는 '모-'로 장음화된다. 이광수가 소리 표기를 '모우'라고 않고 '모-'라고 쓴 것도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는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벌써 틀렸다'로 말했을 때보다 모음의 장음으로 인한 성대와 공기만으로 나오는 소리에 짧은 휴지가 붙어 적막을 깨고 피하고 싶었던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고양이 소리처럼 낸 작은 소리지만 적막을 깬 충격은 크다.

위의 인용문은 서사의 전환점과 의식의 성장을 가져다줄 계기를 위해 영체의 육체가 훼손되는 장면이다. 그렇기에 가장 잔인한 장면이면서 동시에 가장 문제적 '옛보기'이다. 근대의 독서가 묵독이라고 단언했던 마에다 아이에 의하면 "초기 언문일치체 소설은 사건을 작가 자신의 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는"⁴¹⁾ 방법이었다고 한다. 작가와 함께 독자는 이 문제의 장면을 형식과 우선처럼 공범자가 되어 옛보고 있다. 다시 말해 공동의 독서 소리는 아니지만 속삭이며 보내오는 소리인 것이다. 근대에 등장한 근대소설을 기준으로 보면 공동체적 독서는 개인적인 독서로 옮겨갔고 비밀의식에 참여되는 은밀함으로 이행되었다. 은밀했지만 그 또한 뿌리 깊은 음성지향성에서 완전히 결별할 수 없었으며, 독서의 낭독과 묵독의 공존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1936년 서적상 노익형은 "『춘향전』, 『심청전』, 『유충열전』은 일 년에 약 34만부씩이나 팔립니다. 춘원의 『무정』도 한때는 인기가 조아 3만5천부 가량이 나갔지요"⁴²⁾라고 회고했다. 춘원 작품의 인기가 당시 대중적인 낭독 체험의 축적 없이 외파로 설명될 수 있을까. 근대의 독서는 묵독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보았던 음성 지향적이고

41) 마에다 아이 저, 유은경·이원희 역, 『음독에서 묵독으로』,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 이룸, 2003, 198쪽.

42) 『나는 어떻게 成功하였나 - 백 원도 못되는 적은자본으로』, 『매일신보』, 1936. 05.14.

반복되는 리듬감을 지닌 활자본 구소설의 언어와 더불어 고소설 내용의 되풀이가 새로운 시대에 지속된 이유도 논의되어야 한다. 형식은 ‘전통’으로 상징되는 영채와 이별하고 ‘근대’의 상징인 선영을 선택한다는 것이 기존 『무정』의 독법이다. 직선 시간관에서 ‘과거는 지워’⁴³⁾지는 것이다. 근대의 세계관이 새 시대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점이 있어 보인다.

4. 기억의 좌표 - 되풀이 독서와 언어관

『무정』에는 자아의 문제를 다룬 세계관과는 별개로, 주인공이 작가의 사상을 반영한다는 일반론을 비껴, 걸작이 된 이유가 존재한다. 그 부분을 전통성이라 명명할 수 있다. 주인공이 보여주는 근대적 지향만으로는 『무정』이라는 텍스트가 우람할 수 없다. 작가가 버리고 싶어 했던 전통이라는 세계가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⁴⁴⁾(혹은 작가도 의식하지 못한) 독자에게 호소력을 가졌던 것이다. 구세계, 혹은 전통을 상징하는 영채는 『무정』에서 가장 광채를 발하고 생동하는 인물이다. 선영과 형식만으로는 왜소한 세계임이 명백하다.

『무정』에 내포된 세계는 이중적이다. 작가는 의식적으로 전통과 결별

43) “식민지 조선의 주류 엘리트로서 이광수와 임화의 공통분모는 그들의 상반된 가치지향과는 달리 근대문학 이데올로기를 통해 독자들의 경험 속에 남아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워나갔다는 것이다(한기형, 『구소설의 서사가 근대의 시간과 만날 때-하위대중의 형이상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족문화사연구』 67호, 민족문화사학회, 2018, 230쪽).”

44) “『무정』의 서사 안에서 근대를 표상한다 할 수 있는 이 열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인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형식이 아닌 영채라는 사실이다. …(중략)… 부모를 잃고 오직 하나 남은 정혼자를 만나기 위해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겪는 그의 삶은 근대소설의 그것이라기보다는 고전소설의 가치에 가깝다(류수연, 『영채전』, 계몽적 열정과 봉인된 육체』, 『현대소설연구』 3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8쪽).”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사회에서 낭독성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여기까지는 사회현상, 공식성(officiality)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영채가 입체적 인물로 살아난 저변에는 낭독성이라는 연희형식을 통해 민중이 쉽게 수용할 수 있었던 전통성의 토대가 존재했다. 묵독으로 문자를 해독하고 사고한다고 해서 문면에 청각적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묵독의 시대라 명명된 시간에도 낭독성은 여전히 강력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소리와 리듬이 지향된 활자본 구소설의 언어만으로는 낭독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이제 독자들의 언어관을 살필 차례이다.

앞서 서적상의 진술에 따르면 『무정』의 인기는 활자본 구소설을 넘어 서지 못했다. 언문일체제의 언어로 이루어진 소설이 등장했음에도 고소설의 인기는 대단했다. 1928년 염상섭은 ‘한문 소양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문체가 민중의 유일한 호독물(好讀物)⁴⁵⁾로 탐독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민중에게 필요한 문예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어쩌서 난해한 한문체 언어를 민중 다수가 선호하는지 염상섭의 고민은 깊었다. 그의 고민은 동일 시대 동일 공간의 다른 언어관의 공존을 재고하게 한다.

독자 언어관을 살피려면 활자본 구소설 독자의 실질적인 감상을 살펴 봐야 한다. 1910~1920년대 구소설의 낭독 독서 수용 양상은 신문 기사를 통해 많이 보인다. 그러나 정작 독자의 심상은 찾기 어렵다. 2019년에 발표된 송재학의 『슬프다 풀 낫헤 이슬』 시집에는 딱지본을 주제로 몇 편의 시가 수록되었다. 그중 1960년대 시인이 어릴 적 외할머니와 함께

45)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운영전』, 『장화홍련전』, 『사씨남정기』 …(중략)… 한문의 소양이 없이는 난해한 문체이고 보편야 민중적 보급이라는 점에서 존재의 의의가 박약하여질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것을 근대의 민중이, 오히려 지금도 대다수의 민중이 유일한 호독물(好讀物)로 탐독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문예에 주렸던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염상섭, 『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 - 3』, 『동아일보』, 1928.04.12.,3쪽).”

들은 『춘향전』에 대한 시가 보인다. 시는 단순히 낭독되어 함께 『춘향전』을 들었다는 정보전달에서 끝나지 않고 외할머니의 심상을 표현했다. 현재 활자본 구소설을 낭독으로 향유한 당시 독자가 어떤 심상을 가졌는지 볼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이 시는 그런 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딱지본 언문춘향전」 일부를 인용하여 활자본 구소설 독자의 언어관에 접근해보자.

알록달록한 딱지본 옥중화이다 오십 년 전부터 할머니였던 외할머니가 금호 장터에서 사 온 1960년대 향민사 춘향전을 이모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읽어 주어야만 했다 책 읽어 주는 전기수 이모의 심사가 사나워지려 하니 외할머니의 조급증이 귀한 계란탕을 내었다 요전법이다 며칠 지나 외할머니는 오롯이 춘향전의 페이지를 넘겼다 내가 한글을 깨치는 것보다 더 빨리, 글자를 모르는 외할머니가 춘향이 속내를 외우기가 버겁지 않겠다.⁴⁶⁾

시인의 외할머니는 금호 장터에서 『춘향전』을 샀다. 글을 모르는 외할머니는 전기수 이모를 구슬려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이 지나 외할머니는 오롯이 『춘향전』의 페이지를 넘겼다. 어린 시인이 ‘글’을 익히는 시간보다 글을 모르는 외할머니가 ‘감정’을 익히는 시간이 더 빨랐다. 외할머니에게 『춘향전』은 문자를 해독하고 내용을 탐색하기 위한 독서물이 아니다. 외할머니는 되풀이해서 듣고, 익숙해졌다고 해서 책을 덮지 않는다. 외할머니가 텍스트를 장악하는 법은 익힐 때까지 반복한다는 것, 익히고 나서 되풀이하여 읽는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되풀이해서 듣기 좋아하는 것은 스스로 들려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여 감상하는 즐거움을 추구’⁴⁷⁾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독자의 언어관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야기를 습득하는 단계에서 낭독언어의 역할과 두 번째

46) 송재학, 「딱지본 언문춘향전」, 『슬프다 풀 곱혀 이슬』, 문학과지성사, 2019, 61쪽.

47) 에릭 A.해블록 저, 권루시안 역, 「원시 구술성에 관한 일반 이론」, 『뮤즈, 글쓰기를 배우다』, 문학동네, 2021, 94쪽 참고.

는 이야기를 감상하는 단계에서 낭독언어의 특징이다.

첫 번째, 이야기를 습득하는 단계에서 낭독언어 역할은 기억의 재건이다. 고대 그리스 구전 작법을 연구한 버클리 피바디(Berkley Peabody)는 고대 가수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논의했다. 그에 따르면 고대 가수들은 언어가 가진 ‘축어적인 연쇄에 의존하지도 않고, 다른 가수들로부터 줄곧 들어왔던 주제들과 정형구들에 의존하여 기억’⁴⁸⁾했다고 한다. 위 인용문을 보면 활자본 구소설을 낭독으로 향유하는 방식은 인쇄매체를 통한 이차적 구술성으로 전달된다. 전기수 이모는 문자를 기반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어린 송재학은 그것을 읽고, 쓰는 문제로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문자성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외할머니는 이차적 구술을 듣고 반복하여 기억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문자를 받아들인다. 되풀이한 후 오롯이 페이지를 넘기는 외할머니에게 문자는 각각 의미를 가진 기표가 아니라 내러티브의 순차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으로 활용된다.

염상섭은 한문 어투를 ‘의미의 문자’로 인식한 반면, 민중은 한문 어투를 ‘기억의 도구’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식의 차이는 곧 염상섭을 비롯하여 당시 근대 지식인들이 활자본 구소설의 향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결정적 차이와 관련된다. 한문 어투의 장광설, 상투성은 문자를 습득하기 위한 반복이 아니다. “장황스런 말투, 즉 직전에 말한 것을 되풀이하는”⁴⁹⁾ 구술문화의 특성을 지닌 활자본 구소설 언어는 문자를 몰라도 이야기책을 향유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한다. 구술문화 영역에는 한 단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반복되는 서술로 인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문자가 의미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고로는 활자본 구소설의 강력한 파급력을 이해하기 어렵다.

문자는 구체적인 것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을 전달한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은 문자만이 아닌 내러티브 자체로 전달되기도 한

48) 월터 J. 옹 저,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적인 기억, 줄거리, 그리고 성격』, 『구술 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228쪽 참고.

49) 위의 책, 67쪽.

다. 활자본 구소설의 파급력은 내러티브로 추상적 개념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춘향의 속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근대 작가는 관념적 추상을 구체적 사물에 비유하여 이를 전달할 수 있다. 구체적 사물이 이미지로 춘향의 속내를 보강한다. 그런데 이는 잡히지 않는 춘향의 속내의 애매함을 드러낸다. 구체적 이미지 없이 속내는 혼자 스스로 설 곳이 없다. 활자본 구소설은 스스로 서지 못하는 춘향의 속내를 둘러싸고 겹겹의 이야기를 만든다. 문자가 지닌 의미로 속내를 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가 동심원처럼 쌓여 속내의 강력한 이미지를 환기 시킨다. 외할머니가 춘향의 속내를 어린 시인보다 빨리 외웠던 것은 삶의 굴곡과 내러티브의 환기력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쉽게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문자의 의미보다 기억의 환기로 작품의 언어를 해독했다고 보면 활자본 구소설의 인기 원인을 이해하는 길이 열린다.

두 번째, 습득 후 감상하는 단계에서 낭독언어의 역할은 이야기 생성이다. 외할머니는 『춘향전』을 이차적 구술로 충분히 습득한 후 혼자 『춘향전』을 보기 시작한다. 동일 작품을 반복해서 감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고소설은 비슷한 인물, 사건이 반복된다. 되풀이는 내러티브의 핵심만 세우면 온갖 이야기의 삽입, 퍼포먼스의 개입을 허락한다. 기억을 더듬으며 오롯이 페이지를 넘기는 외할머니는 춘향의 감정을 체화했기에 다시 일차적 구술로 스스로 이야기를 주조하게 된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기고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는 순환이 외할머니에겐 지루하지 않다. 활자본 구소설의 반복성은 낭독되는 정형구와 내용에서 되풀이된다. 활자본 구소설은 유사한 작품들이 계속 창작되어 출판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런 방식은 근대 창작물로는 이질적이지만 전통적 창작과 연관된다.

1921년 다카하시 도루(高橋亨)는 “『춘향전』같은 것도 『서상기』를 서투르게 모방한 것”⁵⁰⁾이라고 했다. 근대적 문학을 보는 안목인 독창성을

50) “『춘향전』같은 것도 『서상기』를 서투르게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중략)…『구

중시하는 관점에서 고소설을 평가한 것이다. 그의 눈에는 내용의 유사성 때문에 조선의 고소설은 서투른 모방작을 생산해 내는 방식으로만 보였다. 1910년대 신작구소설들이 『춘향전』과 유사한 내용으로 창작되었던 것까지 반영하면 다카하시 도루의 관점으로 고소설은 새로운 것도, 주된 창작물도 없는 것이 된다. 그런데 독창성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서사를 생성하는 익숙함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좋은 작품을 선별하는 안목은 바뀐다. 이야기의 삽입, 퍼포먼스의 개입이 허용된다는 것은 여러 가능성의 마주침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여러 가능성과 마주칠 때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나머지를 버리게 된다. 이야기는 낭독으로 향유되면서 이 선택의 가능성을 독자의 몫으로 열어둔다. 독자의 몫은 복수 작가들의 창작물로 생산된다. 『춘향전』의 몽룡이 다른 여성도 선택할 수 있다는 갈라짐에서 『청년회심곡』이 나올 수 있으며, 춘향이 변학도의 악행으로 강물에 투신 할 수 있다는 갈라짐에서 『부용의 상사곡』이 나올 수 있으며, 춘향을 돕는 관리가 있다는 갈라짐에서 『추풍감별곡』이 나온다. 갈라짐은 다양한 가능성의 상상력을 추동시키고 개별 작품이 존재하게 한다. 모두 기생의 애정 서사이고 결말은 동일하지만 전개 과정에서 무수한 갈라짐이 구현되기에 같은 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으로 존재한다. 독창성이라는 독법만으로 문학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리스 신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도 같다. 되풀이 서사가 가진 독자 참여성을 인정한다면 다수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심장으로 육박해 들어간 구소설의 호소력을 파악할 수 있다.

운몽』같은 것도 중국적 사상에 무대인물 또한 모두 중국에 취하여, 조선인 사상의 특징이라고 볼만한 것은 거의 없다. 高橋亨, 『朝鮮人』 1921, 23쪽 (이상현·류중희, 『다카하시 조선문학론의 근대학술사적 함의 - 다카하시 도루의 『朝鮮文學研究-朝鮮の小説』(1932)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2, 364쪽에서 다카하시 글 재인용).”

5. 맺음말

이 글은 활자본 구소설의 낭독성을 분석한 글이다.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활자본 구소설의 문장에 보이는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구소설 문장에는 모음조화와 아래아의 활용을 통한 음성 지향성이 뚜렷하다. 이는 입말에 중점을 둔 전달력이다. 구소설에는 구어적 표현만이 아닌 한 문 문어적 표현도 많았다. 한자식 단어의 어절과 어절 사이는 동일한 길 이로 반복되어 문장에 리듬감을 준다.

둘째, 독자가 텍스트에 입히는 구연성(口演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글의 낭독성은 읽는 사람의 연극적 공연으로 이해해야 한다. 각 등장인 물을 다르게 구체화해 대화한다든지, 몸짓이 따라가며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슬플 때 어조를 바꾸고 과장과 길게 읽기, 효과음 내기 등 모든 방식이 동원된다.

셋째, 문자 텍스트에 관한 현재주의(presentism) 시각에서 벗어나 동일시간대 동일문자가 문화계층별로 다르게 인지됨을 재고해야 한다. 20세기 초 문자를 보고 내러티브를 인지하는 방식은 둘로 나뉜다. 한 계층은 문자를 '의미의 문자'로 인식했고 다른 한 계층은 '기억의 도구'로 인식했다. 두 계층의 언어관은 독서 취향과 방식에도 차이를 보였다. 양자의 언어관은 동시대 문학장(場)에 공존했다. 한쪽은 근대문학을 추구했고 다른 한쪽은 전통적 서사의 향유 방식을 지향하고 있었다. 서로 상반되어 보이나 활자본 구소설의 인기는 『무정』의 흥행과 무관하지 않다.

활자본 구소설을 소리 내어 읽는다는 것은 당시 공격한 논자들의 말대로 화로에 던져야 할 유산일 수 있다. 그러나 낭독성이라는 문화코드 없이는 민중들이 새 문학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낭독 독서는 근대 독자의 한 형태로 넓게 이해되어야 하며, 근대소설을 독해할 때 보이지 않게 작동한 토양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 『신유복전』, 광문서포, 1917.
『유충열전』, 대창서관, 1929.
『육효자전』, 조선서관, 1916.
『추풍감별곡』, 신구서림, 1913.
『書籍界에 獨魔, 타락된 서적상계 그 중에 몇몇 해적 괴수는 인사동에』,
『매일신보』, 1915.04.13.
『나는 어떻게 成功하였나 - 백 원도 못되는 적은자본으로』, 『매일신보』,
1936.05.14.
김동인, 『약한 자의 슬픔』, 『창조』 창간호, 1919.
염상섭, 『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 - 3』, 『동아일보』, 1928.04.12.
유춘동·엄태웅 엮음, 『신문관의 육전소설』, 소명출판, 2018.
이광수, 『무정』, 『매일신보』, 1917.02.20.
이기영, 『고향』, 『조선일보』, 1934.07.29.
이무영, 『흙의 노예』, 지만지, 2008.
이해조, 『강상연』, 신구서림, 1916.
_____, 『구의산』, 신구서림, 1912.
박달성, 『경성 형제에게 탄원합니다!-대경성(大京城)을 건설키 위하여』,
『개벽』 21호, 1922.03.01.
송지영, 『산촌생활기록 火田民들과가치』, 『동아일보』, 1935.07.06.~10.
김현주 외 편저,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1998.
서유영, 『六美堂記』, 서강대학교 소장 필사본.
송재학, 『슬프다 풀 끄혜 이슬』, 문학과지성사, 2019.
최호석, 『활자본 고전소설의 기초연구』, 보고사, 2017.
마에다 아이 저, 유은경·이원희 역, 『일본근대 독자의 성립』, 이룸, 2003.

- 에릭 A. 해블록 저, 권루시안 역, 『뮤즈, 글쓰기를 배우다』, 문학동네, 2021.
- 윌터 J. 옹 저,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2. 논저

- 김명주, 「〈현청문감〉에 나타난 ‘·’표기와 그 변화 양상」, 『한글』 314호, 한글학회, 2016, 45-77쪽.
- 김선희, 「음체계의 변화와 방언접촉」, 『언어학연구』 16호, 한국중원언어학회, 2010, 47-65쪽.
- 김윤진, 「신소설 서사기법의 구술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108쪽.
- 김정태, 「판소리 발음법의 특이성 고찰-송순섭의 동편제 적벽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48권, 2019, 145-177쪽.
- 김진영, 「고소설의 낭송과 유통에 대하여」, 『고소설연구』 1권, 1995, 63-94쪽.
- 김효진, 「근대 소설의 형성 과정과 언문일치의 문제 (2)-이광수 연재 장편소설 『무정』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28,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221-262쪽.
- 류수연, 「‘영채전’ 계몽적 열정과 봉인된 육체」, 『현대소설연구』 3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7-21쪽.
- 양문규, 「초기 한국 근대소설의 문체 형성 과정」, 『민족문학사연구』 52호, 민족문학사학회, 2013, 82-108쪽.
- 유석환, 「딱지본 재독 - 딱지본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위하여」, 『근대서지』 18호, 근대서지학회, 2018, 544-552쪽.
- 윤희선,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나타난 ‘·’의 양상과 그 특징」, 『반교어문연구』 53집, 반교어문학회, 2019, 215-249쪽.

- 이상현·류충희, 『다카하시 조선문학론의 근대학술사적 함의 - 다카하시 도루의 『朝鮮文學研究—朝鮮の小説』(1932)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2, 353-380쪽.
- 이주영, 『신문관 간행 육전소설 연구』, 『고전문학연구』 11권, 한국고전문학회, 1996, 423-442쪽.
- 이홍식, 『한국어 어미 ‘-더라’와 소설의 발달』, 『텍스트언어학』 14권, 한국텍스트 언어학회, 2003, 167-190쪽.
- 장유정, 『활자본 고소설과 식민지 모더니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263쪽.
- 최호석, 『신문관 간행 ‘육전소설’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57집, 2010, 131-160쪽.
- 한기형, 『차등 근대화와 식민지 문화구조』, 『민족문학사연구』 62호, 민족문학사학회, 2016, 41-77쪽.
- _____, 『구소설의 서사가 근대의 시간과 만날 때-하위대중의 형이상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족문학사연구』 67호, 민족문학사학회, 2018, 215-238쪽.

<Abstract>

A study of the language of Printed Ancient Fiction of the 1910 ~ 1920s

Jang, You-Jeong*

This thesis is an article that identifies the 'sound reading' of Printed Ancient Fictions favored by the public in the 1910s and 1920s and analyzes the language view of each cultural class at the time. Sound reading is different from just reading aloud. Readers change their tone according to their emotions, make facial expressions, exaggerate, read long, and make sound effects. By means of various methods of the sound reading it is very effective to make the listeners-readers understand and receive the stories, who did not read writing-letters.

The method of reading writing-letters mingled with Chinese idioms/set-words and recognizing (long) stories in the early 20th century differs according to the cultural class. One class recognized the Chinese idioms/set-words as a 'expression of deep meaning' and the other as a 'tool of memory'. These different recognitions coexisted.

The difference in language views also influenced the taste and evaluation of reading methods. In the period of budding of modern novels, intellectual readers questioned the sound reading and criticized it as an inheritance of bad tradition that should be thrown away. It should be said that many readers would not have been able to access

* Sungkyunkwan University

the modern publishing market without Printed Ancient Fiction as a cultural code of reading to connect modern reading. It needs to be positively understood readability of Printed Ancient Fictions. It reflects not only the language views of intellectuals and other non-intellectual groups making role of a reservoir of the energy of traditional narratives.

Key Words: Printed Ancient Fictions, Readability, Publishing market, Classical fictions, Sound reading

■ 논문접수 : 2021년 12월 10일

■ 심사완료 : 2021년 12월 21일

■ 게재확정 : 2021년 12월 25일